민주 광주시당위원장 합의추대?

지역 국회의원들 조만간 회동 후보단일화 논의

출마 피력 강기정·김재균 의원 긍정적

민주당 내 주류(강기정 의원)와 비주류(김재균 의원) 간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였던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가 '합의 추대'라는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되고 있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경선' 보다는 '합의 추대' 쪽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한편 조만간 회동을 통해 이 문제를 본격 논의키로 했기 때문이다.

11일 민주당과 지역정가에 따르면 현재까지 광주시당위원장 선거는 강기정(북 갑) 의원과 김재균(북 을) 의원이 출마의사를 밝혀 경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광주시당을 맡아서 좋은 방향으로 변모시키고자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다"고 밝혔고, 김 의원은 "광주시당 조직을 쇄신하고 갈등 조정과 소통을 이룰 수 있는 화합형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지역 국회의원과 당 원로들의 요구에 응하겠다"고 직·간접적으로 출마의사를 피력했다.

따라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치러지는 광주시당위원장 경선이 사실상 당내 주류와 비주류 간 '전초전'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김동철 광주시당위원장과 박주선 최고위원, 조영택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경선 보다는 후보 단일화를 통한 '합의추대'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철 광주시당위원장은 지난 9일 "강기정, 김재균 의원을 제외한 6명의 광주지역 의원들이 조만간 회동, 광주시당 위원장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광주시당 위원장 경선 여부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강기정·김재균 의원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도 최근 "이 시기에 경선을 한다고 의원들끼리 티격태격하면 지역정서와 그동안 추대했던 관행에 어긋난다"며 "서로 이야기를 나눠 조정해 추대형식으로 가는 게 보기 좋은 모습"이라며 당 안팎에서 '후보 단일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양 의원들도 서로 경선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만큼 '합의 추대'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선이 부담스럽다'고 밝힌 적이 있는 강기정 의원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고 '합의 추대'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균 의원 또한 부정적이지 않는 것으로 측근들은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인 만큼 주류와 비주류 측이 한 치의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후보 단일화 추대'는 물 건너 갈 공산이 크다는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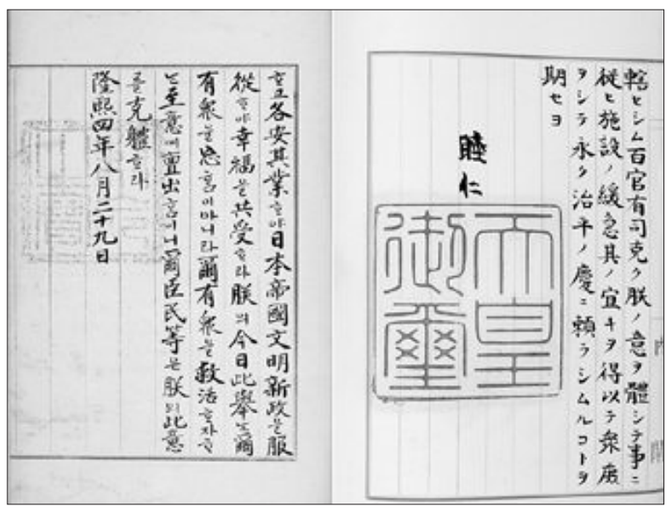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일병합 무효' 입증문서 첫 확인

'순종 승인 거쳐 합법'

日 주장 뒤엎는 자료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공개



한·일병합이 국제법상 무효임을 입증하는 조약문건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병합 공포 한국황제(순종)의 '칙유'(왼쪽)와 일본 명치 천황(睦仁, 무쓰히토)의 병합 공포 조서 詔書(오른쪽). /연합뉴스

한·일병합이 국제법상 무효임을 입증하는 조약문건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연합뉴스가 10일 서울대 이태진 명예교수로부터 입수한 '일본측 한·일병합 조서' 사진자료에 따르면 1910년 8월29일 일왕(천황)이 한일병합을 공포한 조서에 국새(天皇御璽)를 찍고 '睦仁'이라는 이름을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이 최근 입수해 제공한 일본측 한·일병합과 관련된 일본측 공문조서에도 국새 날인과 함께 일왕의 이름인 '睦仁'(일왕 메이지의 본명. 무쓰히토)이 서명돼있다.

반면 대한제국 순종황제가 같은 날 반포한 조서(칙유) 원본에는 국새가 찍히지 않았고 '李拓'이라는 이름도 서명되지 않았다. 그 대신 행정적 결재에만 사용하는 '勅命之寶'라는 어새가 날인돼있다.

양측 조서의 형식요건이 이처럼 상이한 것은 한·일병합이 순종황제의 승인을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일본측 주장을 뒤엎는 것으로, 국제법상 무효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서울대 규장각 어학연구원이 소장한 순종황제의 조서(칙유) 원본은 공개된 적이 있으나 이를 비교할 수 있는 일본서 원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서울대 이 교수는 지난 달말 일본 도쿄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된 일본측 조서원본을 발견했으며 이를 이달초 CD 형태로 일본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 교수는 "병합조약문건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양국 조서 원본을 비교해볼 때 순종 황제가 병합조약을 직접 체결한 것이 아니란 것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일강제병합의 무효화 주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의 지식인들은 앞서 지난 5월 각국의 수도에서 '1910년 체결된 한일병합 조약은 무효'란 내용의 성명을 동시에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MB, 日 사과 담화 '8·15화답' 고민

강제 병합 무효·종군위안부 포함 여부 주목

이명박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는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의 '식민지 지배 사과 담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최종 입장이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한일 양국 정부는 간 총리의 담화 내용에 대해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화답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담화 내용을 "과거에 비해 진일보했다"고 일단 긍정 평가한 만큼 8·15 경축사를 통해 일본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계기로 미래지향적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메시지를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담화에서 미흡했다고 지적된 부분들을 8·15 경축사에서 언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번 8·15 경축사에서는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해에 맞는 광복절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부각시킬 것으로 전해진 만큼 이 대통령이 강제병합의 불법성과 병합조약이 무효라는 점을 지적하는 메시지를 전할지 주목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강제 병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익과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느냐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할 때 8.15 경축사가 강경 기조로 흐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LA 교육구 평의회, 광복절 기념일 제정키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LACCD) 평의회가 한국의 광복절을 공식 기념일로 제정키로 했다.

이 교육구 평의회 이사인 티나 박(34·한국명 박다희)은 11일 "LACCD 교육평의회 이사진이 11일 오후 3시30분(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웨스트 워싱턴가에 있는 트레이드-테크니컬 칼리지 남캠퍼스에서 이사회를 열고 광복절 기념일 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미국의 교육 기관이 광복절을 공식적인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이 교육구 교육평의회 이사에 당선됐으며 지난주 광복절 기념 결의안을 평의회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위안부 문제 해결 세계연대행동의 날

11일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930차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일본정부의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수요시위는 강제병합 100년, 해방 65주년을 맞이해 2010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연대행동의 날로 확대 돼 일본, 미국, 독일, 대만에서도 집회를 벌여 일본정부의 정신대 문제에 대한 입법해결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몽유도원도' 등 250여곳에 6만여점 산재

■ 日 소장 주요 한국문화재 어떤 게 있나

정부 당국자가 10일 "일본 내의 우리 문화재 중 국가권력에 의해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것은 우리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일본에 있는 주요 한국문화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일본에는 간 나오토(管直人) 총리가 이날 앞서 담화를 통해 반환 의사를 밝힌 조선왕실의궤를 비롯한 도서 외에도 많은 수의 한국 문화재가 남아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 있는 한국문화재는 6만1409점에 이른다. 도서류 등 상당수는 조선왕실의궤와 함께 궁내청 쇼로부(書陵部)에 있지만 나머지 문화재들은 도쿄국립박물관과 도쿄내각문고, 덴리(天理大) 중앙도서관, 오타니(大谷)대 등 250여 곳에 흩어져 있다.

특히 도쿄국립박물관은 고려시대 유물인 나전국화문경함(螺鈿菊花文經函) 등 무려 6천751점의 한국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이 중 1천856점은 이른바 '오구라 컬렉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일제강점기 일본의 실업가인 오구라 타케노스케(小倉武之助.1896~1964)가 도굴 등의 방법으로 빼돌린 한국의 문화재다.

오구라 컬렉션은 한반도 청동기시대 유물인 견갑형동기(肩甲形銅器)부터 시작해서 가야의 금관, 여러 점의 금동불입상, 각종 금귀걸이, 향로, 토우 등이 포함됐다.

시대별·분야별 모든 유물을 모은 셈이다.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덴리대 도서관은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비롯해 5711건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지난해 전시를 위해 국내에 들어오기도 했던 몽유도원도는 제작년도가 알려진 최고(最古)의 산수화로, 안견의 그림에 안평대군과 김종서, 신숙주, 성삼문 등의 글씨가 담겼다.

일본 오타니대가 소장하고 있는 5605점 유물 중에는 역시 현존 최고(最古)의 대장경인 고려대장경 재조대장경이 포함돼 있다. 세계기록유산인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으로 찍은 것이다. /연합뉴스